

전후 일본 외교에서 나카소네 외교의 의미

최희식 _ 국민대학교

목 차

- I. 들어가며: “나카소네 없는 나카소네 노선의 정착”
- II. 나카소네 외교의 본질
- III. 나가며: 요시다 노선과 나카소네 외교

국문초록

자주 국방론, 헌법개정 등 ‘전후체제의 극복’을 주장하면서 적극적 미일협조주의를 구가했던 나카소네 외교는 ‘나카소네 없는 나카소네 노선의 정착’ 과정을 겪으면서 90년대 이후 일본 보수의 주류가 되었다는 점은 부정하기 힘들 것이다. 따라서 나카소네 외교의 본질을 들여다 보려는 최근의 여러 노력은 현대 일본 외교를 이해하는 데 필수불가결한 요소가 되었다. 동시에 나카소네 외교와 요시다 노선과의 연관성을 이해하는 것은 나카소네 외교의 현대적 산물인 ‘보통국가론’의 본질을 이해하는데도 중요하다. 나카소네가 표방하는 국제주의는 실질적으로는 자유진영의 유대강화, 즉 대소 견제망 구축이라는 형태로 나타나는 지정학적 외교에 불과하며, 그 외교가 성공한 것은 신냉전이라는 구조적 요인에 기인한 바가 크다. 나카소네의 민족주의와 ‘친미(미일동맹의 강화)’가 지정학적 외교 전략으로 구체화되며 상호 결협하는 형태를 보인다는 측면에서, 90년대 이후 일본 보수 외교 전략의 ‘원형’을 구축했다는 평가가 가능할 것이다.

주제어

나카소네 야스히로, 일본 외교, 요시다 노선, 지정학, 국제주의

I . 들어가며:

“나카소네 없는 나카소네 노선의 정착”

1. 나카소네 외교의 특징¹⁾

신냉전이 한창이었던 82년부터 냉전 붕괴의 서막이 시작되던 87년까지, 일본의 외교를 이끌었던 나카소네 야스히로(中曾根康弘) 수상은 이전 수상과는 달리 ‘대통령형 수상’이라 불리우며 대내적 개혁과 더불어 외교에 혁신을 불러왔던 인물로 평가받았다. 특히 ‘전후 정치의 총결산’을 표방하며 요시다 시게루(吉田茂)에 의해 형성된 이른바 ‘요시다 노선’을 넘어 국제정치경제에 있어 일본의 적극적 역할을 도모하며 일본 외교의 변화를 추동하였다.

우선 그는 수상 관저의 조직체계를 강화하려 했다. 당내 최대파벌인 다나카파 출신이자 관료정치의 속성을 잘 파악하며 족의원에 대한 영향력이 컸던 고토다 마사하루(後藤田正晴)를 관방장관으로 기용하여 관저의 정책조정 능력을 강화하였다. 동시에 그는 각 성청에서 파견되는 총리 비서관에 과장급 인사가 배치되는 관행을 타파하고, 국장 승진 직전의 능력있는 인사가 파견되도록 하여 각 성청의 관료조직을 장악하려 했다. 86년 7월에는 수상 관저의 조직체계를 내정심의실, 외정심의실, 안전보장실, 홍보관실, 정보조사실 등 ‘5실 체제’로 정비하여 수상 관저가 각 성청

1) 이 부분은 최희식, 「나카소네 야스히로의 정치 리더십 연구: 내재화된 변혁적 리더십의 성과와 한계」, 『한국정치학회보』 46-5호, 2012를 바탕으로 재구성, 가필한 것임.

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조직을 강화하였다. 이는 그 동안 수상이 파벌 협의체의 수장 기능에 머물렀던 한계를 극복하고, 수상을 중심으로 하는 하향식 의사결정 시스템을 위한 노력이었다. 후에 이러한 외교 정책결정과정은 ‘관저 외교’로 명명되었으며, 이를 연구한 많은 사람들이 나카소네 시기를 그 원점으로 파악하고 있다.²⁾

동시에 그는 오히라 마사요시(大平正芳) 수상의 ‘심의회 정치’와 ‘브레인 정치’를 원용하면서 기존 자민당 내 정책결정 과정의 중요한 특성이었던 상향식 의사결정을 타파하려 노력했다. 퍼포먼스에 능한 정치적 자질과 어울리며 나카소네식 대중정치는 심의회 정치를 통해 그 위력을 발휘했다. 수상의 사적 자문기구 혹은 행정조직법상의 심의회에 나카소네의 정책조언 그룹이 주도적으로 참여하여 나카소네의 정책적 이념을 실체화하고 제언서를 발표했다. 나카소네는 이러한 제언서를 바탕으로 여론을 환기하며 관료를 포위하는 방식을 취했다. 실제, 국영기업의 민영화에서는 스즈키 내각부터 설립된 ‘임시행정조사회(린초)’를 활용하였고, 야스쿠니 신사 참배는 ‘야스쿠니 신사차배에 관한 간담회’의 결론에 바탕을 두고 감행했다. 또한 방위비 GNP 1% 제한 규정의 철폐는 84년 12월 ‘평화문제 연구회(수상의 사적 자문기구)’의 보고서를 바탕으로 실시되었다. 교육개혁의 경우는 ‘문화와 교육에 관한 간담회(수상 사적 자문기구)’의 보고서를 실질적으로 채택하는 형태를 취하였다.³⁾

또한 퍼포먼스에 능했던 정치적 자질은 일본 외교 방식의 변곡점을 형성했다. 일본 정치인은 자신을 표현하는데 약하다는 일반의 인식을 타파하고, ‘얼굴이 보이지 않는 외교’로 평가받던 일본 외교에서 변화를 꾀

2) 信田智人, 『官邸外交: 政治リーダーシップの行方』, 東京: 朝日新聞社, 2004, pp. 131~133, 140~143.

3) 박철희, 『자민당 정권과 전후 체제의 변용』, 서울대출판부, 2011, pp. 190~192; 이시카와 마쓰미, 박정진 역, 『일본 전후정치사: 일본 민주주의의 보수적 기원과 전개』, 후마니타스, 2006, p. 198.

하였다. 특히 미국, 한국 등 해외 지도자와의 개인적 유대관계의 형성(전두환과의 개인적 유대관계, 론·야스 관계의 구축)은 국내정치 상의 리더십을 확고히 하는데 중요한 기능을 했다. 국내정치적으로는 전술했듯이, 심의회에서 중요한 정치 이슈를 다루게 했고, 거기에서 논의된 내용을 대중매체를 통해 국민들에게 직접 호소함으로써 나카소네식 대중정치를 전개하였다. 여기에는 전후 수상으로는 처음으로 TV 등 대중매체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국민 지지를 바탕으로 관료정치를 우회하고자 했던 그의 정치 기법이 잘 들어났다.⁴⁾

이러한 관저 기능의 강화, 관료 조직을 우회하며 자문기구를 이용한 상향식 정책결정 구조, 국민과 소통하는 리더십 스타일은 정책집행력을 향상시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할 수 있는 강력한 토대가 되었다. 이러한 구조 위에서 그는 ‘국제국가 일본’을 표방하며 미일 동맹을 강화하고 그 기반 위에 일본의 적극적 역할을 도모하려 했다.

나카소네는 83년 1월 미국을 방문하여, 소련의 위협에 대해 “일본 열도를 불침 항공모함으로 만들 것이다”는 발언을 통해 일본의 국제적 역할을 확대할 것을 상징적으로 표현했다. 86년에는 국내적 반발을 조정하여, 87년도 예산안에 방위비를 예상 GNP의 1.004%로 한다는 조항을 삽입하였다. 실제 미국은 일본의 국제적 역할의 증대를 요구하며 방위비 증가를 요구했고, 그 제한정책이었던 방위비 GNP의 1% 제한 규정을 철폐하기를 요구해왔다. 또한 동년 각의 결정을 통해 레이건 정부가 요구하던 전략방위 구상(SDI) 연구에 참여할 것을 결정하였다. 이는 사실상 미국에 한해 무기 기술을 공여하는 것으로 미일 동맹의 긴밀화를 상징하는 것이었다. 87년 9월 미일 정상회담에서 나카소네 수상은 페르시아만의 지뢰 제거를 위한 일본의 역할을 약속했다. 전후 최초의 자위대 해외파병을 추진

4) 松田橋和, 「新しい政権システムの芽生え」, 世界平和研究所 編, 『中曽根内閣史: 理念と政策』, 東京: 丸の内出版, 1995, pp. 761~765.

했던 것이다. 하지만 해상자위대의 귀해정 파견은 여론과 야당의 반발이 예상된다는 기각되었고, 경제협력 방식 등 비군사적 방법으로 대처할 것이 결정되었다.⁵⁾ 비록 실패하였지만, 국제평화유지활동에의 일본 자위대 파견을 시도했다는 점에서 주목할 필요가 있다.

동시에 경제적 역할에 대한 미국의 요구에 맞춰, 나카소네 내각은 대규모 시장개방을 통해 무역수지 흑자문제를 해결하려는 적극적인 모습을 보였다. 물론 가시적인 성과가 기대에 미치지 못했지만, 수출자유규제, 시장분야별 협의(MOSS), 관세인하조치(액션플랜), 미일 반도체 협상 등을 실행하며, 일본의 대외개방을 적극적으로 실시하였다.⁶⁾ 동시에 나카소네는 전 일본은행 총재 마에가와 하루오(前川春雄)를 좌장으로 하는 ‘국제협조를 위한 경제구조조정 연구회’를 조직하여 개방형·내수형 경제체제로의 전환을 위한 정책을 준비하였다. 86년 4월 발표된 ‘마에가와 리포트’는 경상수지 적자 삭감을 위한 내수확대, 수출의존형 산업구조의 개편, 시장개방의 개선, 금융의 자유화 등을 제안하며 세계의 소비시장으로 일본의 역할 증대를 구가했다. 특히 마에가와 리포트는 그 동안 ‘일본 주식회사’로 야유받으며, 자국의 경제적 이익을 위해 국내외적 장벽을 설치했던 ‘일본형 자본주의’에서 벗어나 국제적 보편적 룰에 입각한 경제체제로 전환을 촉구했다는 의미에서 전환적 성격을 지녔다. 위 보고서에 기반하여 나카소네 수상은 TV에 출연하여 “국민 1인당 100달러의 외국제품을 사자”며 호소하는 등 일본 경제구조의 전환을 위해 적극적인 노력을 하였다. 87년 4월에는 5조 엔 규모의 내수확대 정책을 발표하기에 이르렀다.⁷⁾

나카소네의 아시아 외교 또한 ‘국제국가 일본’ 노선에 입각해 활발하

5) 佐々淳行, 「中曽根内閣と国の危機管理」, 世界平和研究所 編, 『中曽根内閣史: 理念と政策』, 東京: 丸の内出版, 1995, pp. 320-321.

6) 黒田眞, 「対米摩擦と市場開放」, 世界平和研究所 編, 『中曽根内閣史: 理念と政策』, 東京: 丸の内出版, 1995, pp. 591-594.

7) 五百旗頭眞 編, 『戦後日本外交史』 東京: 有斐閣, 2010, p. 211.

게 전개되었다. 나카소네는 83년 1월 방미 전에 해외 첫 순방지로 한국을 방문하여 40억 달러의 경제원조 문제를 해결한 후, 4월에는 아세안을 방문하여 광공업품에 대한 특혜관세를 50% 확대하는 등 아세안을 향한 시장개방계획과 300억 엔 규모의 엔차관 제공을 약속했다. 84년 3월에는 중국을 방문하여 4700억 엔 규모의 경제원조를 표명했다. 신냉전 하 미국의 요구에 순응하는 형태였지만, 아시아 자유국가의 정치경제적 안정을 도모하고자 하는 나카소네의 적극적 경제외교는 미국을 비롯한 아시아의 환영을 받았다.⁸⁾

동시에 나카소네는 “아시아와 일본의 입장을 선명하게 밝힐 수 있는 유일한 기회”로 인식하고 있었던 G7 정상회담을 중요한 무대로 생각했다.⁹⁾ 83년 G7 정상회담 개최에 즈음하여, 한국과 아세안에 대표단을 파견하여 요구사항을 청취한 후, 회의에서 이를 전하는 형태로 일본이 아시아의 대표임을 각인시키고자 하였다. 또한 소련의 SS-20 미사일 배치를 강하게 비판하며 국제문제에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일본의 적극성을 어필했다.¹⁰⁾

이렇듯 나카소네의 ‘국제국가 일본’ 노선은 미일 관계를 기축으로 국제문제에 적극적인 역할을 하여 단순한 수혜자가 아니라 적극적 지지자로써 기능하는 것을 의미했다. 동시에 적극적 아시아 외교를 통해 일본이 아시아의 정치적 대표임을 각인시키고, 이러한 아시아 외교의 성과를 통해 국제사회에 있어 일본의 영향력을 제고하는 것이었다. ‘처음으로 얼굴을 보인 일본(初めて顔を持って日本)’이라는 평가를 받은 것은 이러한 국제국가 일본 노선의 상징적인 성과일 것이다.¹¹⁾

8) 長谷川和年, 「中曽根外交」, 世界平和研究所 編, 『中曽根内閣史: 理念と政策』, 東京: 丸の内出版, 1995, pp. 214~218.

9) 中曽根康弘, 「中曽根康弘: 自立と世界外交を求めて」, 『国際問題』(1月), 2002, p. 68.

10) 五百旗頭真編(2010), pp. 203~204.

11) 松田橋和・佐々木芳隆. 1995, 「新時代への政策提起」, 世界平和研究所 編, 『中曽根内閣史: 理念と政策』 東京: 丸の内出版, 1995, p. 806.

2. 나카소네 없는 나카소네 외교의 정착

이러한 나카소네의 리더십은 자민당 주류 정치인 및 전후세대 정치인에게 성공적 리더십으로 평가받으며 다양한 정치가들에 의해 모방되어 갔다. 그의 정치적 지향 또한 90년대 이후 ‘보통국가론’, 신자유주의 개혁론, 정치제도 개혁론으로 계승되어 갔다. 그런 의미에서 50~60년대가 ‘요시다 없는 요시다 노선의 정착’이었던 처럼,¹²⁾ 90년대는 ‘나카소네 없는 나카소네 노선의 정착’ 과정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90년대 이후의 일본 보수 정치가는 나카소네 정권 시기 실패했던 정치개혁, 자위대 해외파병부터 손을 대기 시작했다. 파일은 그런 의미에서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¹³⁾

일본에는 변화하고 있는 탈냉전 환경에 조화시킬 난제를 처리해 갈 지도자가 없었다. 메이지 시대의 과두 정치가도 없었고, 요시다 시게루도 없었고, 국가목표에 대해 통일성 있는 전략적 전망이나 정의를 내릴 수 있는 정당도 없었다. 나아갈 길을 안내할 어떤 초자연적인 이상도 없었다. 그럼에도 옛 국제질서의 종결로 진로 변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보수 전통에 흠뻑 젖어 있는 지도자들은 있었다. **그들(90년대 정치가)은 나카소네의 노력이 실패했던 곳에서 시작할 참이었다. 그들 가운데 오자와 이치로(小沢一郎)가 단연 두드러졌다(주: 필자 강조).**

오자와 이치로(小沢一郎)는 정권교체가 가능한 양당제, PKO 활동을 포함한 일본의 군사적 역할 강화를 모색하며 ‘보통국가’라는 슬로건 하에 나카소네가 하려던 일들을 다시 시작했다. 하시모토 류타로(橋本龍太郎)

12) 五百旗頭真 編, 『戦後日本外交史』, 東京: 有斐閣, 2010, p. 291.

13) Pyle, Kenneth B., *Japan Rising: the Resurgence of Japanese Power and Purpose* (New York: Public Affairs, 2007). 이종삼 역, 『강대국 일본의 부활』, 한울, 2008, p. 579.

는 관저기능 강화하고자 했던 나카소네의 이념을 실현하여, 성청 통폐합 등 행정개혁을 통해 수상의 리더십을 강화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였다. 나카소네 리더십을 그대로 차용했다고 평가받는 고이즈미 준이치로(小泉純一郎)는 ‘구조개혁’을 표방하며 신자유주의 방식으로 일본 경제의 전면적 궤도수정을 추구했다. 아베 신조(安倍晋三)는 ‘전후체제 탈각’을 표방하며 나카소네가 그토록 열망하던 자학사관의 극복, 평화헌법 개정, 집단적 자위권 인정을 핵심과제로 내걸었다. 또한 90년대 이후 많은 수상들과 지도자들은 나카소네 식 정치스타일, 즉 관저외교, 심의회 정치, 대중 소통적 리더십 등을 따라했다.

이처럼 나카소네는 탈냉전 이후 일본 정치의 ‘원류’를 구성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런 의미에서 나카소네 외교를 전후 일본 외교사에서 어떻게 위치설정할 지에 대한 논의는 현재의 일본 외교를 논하는데 있어 매우 중요한 논점이 되고 있다. 이하에서는 나카소네 외교에 대한 지금까지의 연구성과와 최근(2017년) 출간된 와카츠키 히데카즈(若月秀和) 저서 『냉전의 종언과 일본외교(冷戦の終焉と日本外交)』을 중심으로 나카소네 외교의 의미를 되돌아보고자 한다.

II . 나카소네 외교의 본질

1. 나카소네 외교의 지향점¹⁴⁾

일본의 ‘전후체제’는 평화헌법과 미일안보조약의 두 기둥 위에 구축

14) 이 부분은 최희식, 「나카소네 야스히로의 정치 리더십 연구: 내재화된 변혁적 리더십의 성과와 한계」, 『한국정치학회보』 46-5호, 2012를 바탕으로 재구성, 가필한 것임.

되었다. 평화헌법은 이른바 ‘알타체제’의 산물로서, 미국의 초기 점령정책이었던 비군사화 및 민주화 정책(2D 정책)을 가장 극적으로 반영한 제도였다. 국제문제 해결 수단으로써의 전쟁을 부정하고 군대 보유를 금지한 평화헌법 9조는 이를 상징하고 있다.

반면, 극동조항에 입각해 극동 안보에 가능하도록 구상된 대규모 주일 미군의 주둔, 미국의 오키나와 시정권 확보를 전제로한 ‘비대칭적’ 미일안보조약은 ‘냉전체제’의 산물이었다. 그리고 이는 미국의 동아시아 정책을 보좌하는 일본의 ‘기지국가’적 속성을 담보하는 기제였다.¹⁵⁾

그런 의미에서 이른바 ‘55년 체제’로 불리우는 보혁대립 구조는 이러한 평화헌법과 미일 안보조약을 일본 국내정치적으로 내재화하는 것이었다¹⁶⁾. 실제, 혁신세력은 평화헌법으로 대변되는 미군정의 2D 정책 속에 성장하였고 이러한 평화헌법의 수호를 가장 중요한 정치적 목표로 삼았다. 반면 초기 공직추방으로 위기에 빠졌던 보수세력은 미일안보조약으로 대변되는 ‘역코스’ 속에서 재기에 성공했으며 이러한 반공 혹은 자유주의를 정책의 핵심가치로 삼았다. 그런 의미에서 55년 체제는 전후체제를 지탱하는 국내정치적 구조였던 것이다.

이러한 보혁대립은 60년 안보투쟁을 거치면서 정책적 수렴을 보여왔다. 이른바 ‘요시다 노선’은 미국에의 안보의존, 경무장, 중상주의를 핵심 요소로, 보수와 혁신의 정책적 타협점으로 이해될 수 있다. 즉 요시다 노선은 보혁대립 구도 속에 혁신그룹의 정책적 지향을 흡수하면서 정치적 안정성을 확보하려는 ‘불가피한 선택’의 측면이 강했다.¹⁷⁾ 1과 1/2 정당제

15) 남기정, 「한국전쟁과 일본: 기지국가의 전쟁과 평화」, 『평화연구』 9권 1호, 2001, pp. 372~381; Pyle(2007), pp. 372~381.

16) Dower, John, "Peace and Democracy in Two Systems: External Policy and Internal Conflict", Andrew Gordon, ed. *Postwar Japan as History* (Berkeley: Univ. of California, 1993), pp. 4~5.

17) 添谷芳秀, 『日本のミドルパワー外交』, 東京: 筑摩書房, 2005, pp. 32~35; 高坂正堯, 『日本外交の弁証』, 渡辺昭夫 編, 『日本の外交』 東京大学出版会, 1996.

상황에서 평화헌법 개정이 불가능했던 보수는 혁신의 정책적 지향을 흡수하여, 60년 안보투쟁과 같은 과도한 정치대립을 회피하고자 했던 것이다. 이러한 요시다 노선은 비핵 3원칙, 무기수출 3원칙, 우주의 평화적 이용, 해외파병 금지, 방위비 1% 제한 규정, 집단적 자위권의 불인정, 전수 방위론 등 제한적 방위정책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제한적 방위정책에 비교해서 경제정책은 매우 공격적이었으며, '일본식 자본주의'로 불리는 일련의 시스템으로 경제이익을 우선하였다.¹⁸⁾

이러한 전후체제는 자민당 우파 세력의 공격 지점이 되었다. 그들에게 전후체제는 강요된 민주주의, 주체성의 상실로 비춰졌던 것이다. 따라서 그들의 활동은 헌법개정, 요시다 노선의 '제한적 방위정책'을 타파하는데 집중되며 전후체제의 붕괴에 정조준되었다.

나카소네 또한 예외가 아니었다. 나카소네는 오랜 기간 동안 헌법개정, 자주국방을 주장하며 전후체제의 해체를 도모하였다. 하지만 나카소네 또한 국내적으로 정착되어 가던 평화헌법의 가치를 완전히 부정할 수 없었다. 나카소네는 40~50년대에 평화헌법을 전면적으로 부정하며 주체적 헌법의 제정을 주장하였으나, 60년대 이후에는 평화주의와 민주주의 등 평화헌법의 기본적 가치를 높게 평가하며 이를 계승할 것을 주장하기 시작했다. 그에게 있어 문제는 국민의 총체적 의사인 헌법이 미국의 '강요'에 의해 제정되어 일본인의 주체성이 상실되었다는 곳에 있었다. 동시에 평화헌법 9조가 군대 보유와 개전권(開戰權)을 부인함으로써, 일본은 안보를 미국에게 의존하게 되어 주체성이 훼손된다는 점이었다.¹⁹⁾

나카소네의 자주국방론 또한 50~60년대에는 주일 미군을 대폭적으로 축소하고 미일동맹을 미영동맹 수준으로 대등한 동맹으로 발전시킬

18) Pyle(2007).

19) 何力群, 「日本政治の転換点:一九七〇年代の中曽根康弘」, 『国際公共政策研究』 15-1, 2005, pp. 133~134.

것을 주장하며, 독자적 세력화까지도 연상되는 주장을 펼쳤다. 하지만 70년대 방위청 장관의 경험을 통해 주일 미군의 존재를 전제로 하는 미일 안보분담론으로 전환되어 갔다.²⁰⁾ 이는 미일 안보조약에 대한 이중적 평가 때문이었다. 그는 미일 동맹이 기본적 가치를 공유하는 ‘가치 동맹’으로 일본에게 매우 중요한 것임을 인식하기 시작했다. 다만 미국에 일본의 안보를 전적으로 의존하게 되어 일본의 자주성이 훼손되는 것을 우려했던 것이다. 따라서 그의 자주국방론은 일본의 역할분담을 강조하는 적극적인 미일 협조노선으로 변화되어갔다.²¹⁾

실제 나카소네는 수상이 되기 전 82년 10월 10일 자신의 일기에 패전 후 일본이 걸어온 30년은 “비군사성과 범국민성”을 특징으로 하며, 겐로쿠(元祿) 시대, 쇼쿠호(織豊) 시대, 메이지(明治) 시대와 견줄 정도로 위대한 시대였다고 평가하였다. 그는 “(전후 일본이) 신헌법의 제정,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 미일안보조약의 세 가지 기초 위에 현대 일본인의 정당당한 맘과 눈물 중에 건설되었다”고 쓰면서 평화헌법과 미일동맹의 가치를 긍정하였다.²²⁾

이렇듯 나카소네의 정치적 목표는 장기적 측면에서 평화헌법 개정 및 일본의 자주의식 제고를 추구하는 ‘전후체제로부터의 탈각’이었지만, 실질적으로는 소극적 외교, 제한적 방위정책에 머물렀던 요시다 노선으로부터의 탈피를 핵심내용으로 하는 ‘전후 정치의 총결산’으로 좁아져 갔다. 이는 전후체제를 구성하는 두 가지 기둥이었던 평화헌법과 미일안보조약을 기정사실로 전제하고, 요시다 노선의 소극적 외교 및 경제중심 외

20) 中島琢磨, 「戦後日本の自主防衛論: 中曾根康弘の防衛論を中心として」, 『法政研究』 71-4, 2005; 中島琢磨, 「中曾根康弘防衛庁長官の安全保障構想」, 『九大法学』 84, 2002.

21) 70년대 나카소네의 민족주의적 성향과 미일 안보협력의 상호성에 대해서는 佐道明広(2003, 229~238쪽)를 참조. 그의 자주국방론 내에 잠재해 있는 미국에 대한 불신에 대해서는 何力群(2005, 127쪽)를 참조.

22) 中曾根康弘, 「官邸日記」 世界平和研究所 編, 『中曾根内閣史—資料』, 東京: 中央公論, 1995, p. 619.

교로부터 탈피하여 국제문제에 '주체적' 역할을 하는 '국제국가 일본' 노선에 집중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그는 요시다 노선을 일국 평화주의에 입각한 소극적 정책에 불과하며 국가의 독립성이라는 문제에 대해 가볍게 생각했다며 비판하였다²³⁾. 여기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주체적 판단 하에 일본의 국력에 상응하는 적극적 역할을 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물론 이는 미일동맹의 범위를 넘어 독자적 외교 노선을 추구하는 '자주독립 노선'과는 달랐으며, 미국과의 '가치동맹'을 기반으로 주체적이며 적극적인 역할을 수용하는 것을 의미했다.²⁴⁾

동시에 경제면에서는 기존의 자국 성장 중심 경제운영과 이로 인한 국제적 무역마찰을 반성하며, 개방형·내수주도형 경제구조로의 전환을 통해 국제 경제와의 조화로운 발전을 추구하는 것을 추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위해서는 국내산업의 보호와 육성이라는 발전지향적 국가(developmental state)로부터 탈각하여, 국제적 수준으로 경제를 개방하여 세계의 소비시장으로 기능하고, 정부 역할을 축소하며 민간 활력을 강화하는 신자유주의적 경제운영으로의 전환이 불가피하다고 생각했다. 이러한 나카소네의 '경제적 자유주의' 혹은 '신자유주의' 이념은 자본이동과 무역을 통제하면서 국내산업의 보호와 육성을 추구하던 일본식 경제운영이 70년대 석유위기를 기점으로 세계적인 비판의 대상이 되었다는 점에서, 세계 경제 속에서 일본의 역할을 고려해야 하는 시점에서 더욱 빛을 발하게 되었다.²⁵⁾

동시에 나카소네의 정치이념은 민족주의와 국제주의의 기묘한 긴장

23) 中曾根康弘, 「中曾根康弘: 自立と世界外交を求めて」, 『国際問題』(1月), 2002, p. 54.

24) 岩崎八男, 「戦後政治の総決算: 55年体制改革への始動」, 世界平和研究所 編, 『中曾根内閣史: 理念と政策』, 東京: 丸の内出版, 1995, pp. 27~31.

25) 大獄秀夫, 「中曾根政治のイデオロギーとその国内政治的背景」, 『レヴェイアサン』(秋), 1987, pp. 74~79; Pyle(2007), p. 458.

관계 위에 존재했다. 그는 일본의 국가의식과 국민의식 및 전통문화에 대한 인식을 심화시키고, 일본인의 자존심을 회복하고 전후의 부정적인 자기 정체성, 이른바 ‘자학사관’을 극복하려고 노력했다. 이는 요시다 노선의 물주체적인 ‘경제중심주의’로 일본의 도덕·전통·문화가 황폐해졌다는 나카소네의 비판 의식에 기반한 것이었다.²⁶⁾ 즉, 나카소네는 일본 전통문화의 복원을 통해 주체적이고 자립적인 새로운 일본을 만들려 했던 것이다. 실제 나카소네는 85년 7월 자민당 세미나에서 다음과 같이 연설하였다.²⁷⁾

전전에는 황국사관이 있었다. 전쟁에 지자 태평양전쟁사관, 즉 동경재판전쟁사관이 나왔다. 일본을 피고로 하여, 연합국의 법률로 문명, 평화, 인도의 이름으로 재판을 하였다. (중략) 그러나 어느 시기, 일본은 무조건 나뻐다는 자학적 사상이 우리를 엄습했다. 지금도 남아있다. 일본의 나쁜 점을, 전전의 나쁜 점을 쓰면 그것으로 된다는 풍조가 있었다. 나는 반대다. 이겨도 져도 국가이다. 영광과 오욕을 함께 나누는 것이 국민이다. 오욕을 버리고, 영광을 구하며 나아가는 것이 국가이며 국민의 자세다. 이러한 입장으로 일본의 과거 업적을 비판하고 일본의 아이덴티티를 확립할 필요가 있다.

이 연설에서도 알 수 있듯이, 나카소네의 전통주의는 일본의 역사적 과오까지 미화하는 우익적 민족주의와는 궤를 달리하고 있다. 그가 강조하는 것은 국가와 국민에 대한 자의식 확립이었으며, 이를 통한 일본인의 정체성을 확립해 가는 것이었다. 나카소네에 있어 역사적 과오 또한 국가의식 및 국민의식으로 통합되어야 하는 것이었다.

반면 나카소네는 민주주의, 개성, 국제적 시야 등을 중시하는 국제시

26) 何力群(2005), p. 130.

27) 若宮啓文, 『和解とナショナリズム』, 東京: 朝日新聞社, 2006, p. 179에서 재인용.

민으로써의 국민교육을 적극적으로 주창하며 국제주의 면모를 드러냈다. 그는 자문기구인 교육심의회 위원에 혁신세력이었던 마토에다 모토후미(槓枝元文) 일교조(일본교직원조합) 前위원장을 발탁하여, 향후 ‘유토리 교육(ゆとり教育)²⁸⁾’의 시발점을 마련하였다. 이는 국제국가 일본에 걸맞은 국제시민을 양성하고자 하는 국제주의의 발로였다. 실제 나카소네는 70년대 자신의 교육이념이 “인격주의, 국민주의, 국제주의, 실력주의, 지방주의의 다섯 가지”에 기초하고 있다고 말한 바 있다.²⁹⁾

야스쿠니 신사 참배 또한 그의 민족주의적 성향을 잘 보여준 것이었다. 하지만 그는 중국과 한국의 반발에 직면해, 주변국과의 관계를 배려하는 차원에서 참배를 중지하였다. 특히 주목해야 하는 것은 기존 내각과 비교하여 역사인식에서 가장 진일보한 견해를 피력하였다는 점이다. 가령 84년 10월 나카소네 수상은 중의원 예산위원회에서, “중국에 대해서는 침략의 사실도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다. (중략) 역시 침략적 사실은 부정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고 발언하며, 전후 수상으로써는 처음으로 중일전쟁의 침략적 측면을 인정하였다. 동시에 84년 9월 전두환 대통령이 방일했을 시, 천황은 “양국 간에 불행한 과거가 있었다는 것을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는 발언을 하였는데, 이러한 천황의 발언을 이끌어내는데 나카소네의 역할이 컸다. 비록 ‘유감’ 발언에 머물렀지만, 국가원수인 천황으로 하여금 전후 최초로 식민지 지배에 대한 사죄성 발언을 유도했다는 점은 특기할만하다.³⁰⁾ 동시에 그 전날 다음과 같은 발언을 통해 지금까지의 식민지배 관련 발언 중 가장 진일보한 발언을 하기도 했다.³¹⁾

28) 2002년에 본격적으로 실시된 교육으로, 암기식 위주의 교육에서 탈피하여 전인적인 교육을 강조하며, 주 5일 교육 등 전체 수업시간의 삭감, 절대평가의 도입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여유 교육’을 지칭한다.

29) 香山健一, 「中曾根内閣の歴史的役割」, 世界平和研究所 編, 『中曾根内閣史: 理念と政策』, 東京: 丸の内出版, 1995, p. 71에서 재인용.

30) 吉田裕, 『日本人の戦争観』 東京: 岩波書店, 1995, pp. 168-170에서 재인용. 五百旗頭真編(2010), p. 213.

우리나라(일본)가 귀국(한국)에 빚진 바가 컸던 일한 교류사 중에 유감이지만, 금세기 일시기에 우리나라가 귀국 및 귀국민에 대해 다대한 고난을 안겼다는 사실을 부정할 수 없습니다. 저는 정부 및 우리 국민이 이러한 잘못에 대해 깊은 유감을 가지고 있으며(후략).

이처럼 일본정부의 역사인식이 진일보의 방향으로 나아갔던 것이다. 전후 일본은 “강화조약의 11조에서 동경재판을 수락하는 형태로 필요 최소한의 전쟁책임을 인정하면서 미국의 동맹자로서 위치를 획득한다. 하지만 국내에서는 전쟁책임을 사실상 부정하거나 불문에 부치는 등 대외적 자세와 국내적 취급을 의식적이든 무의식적이든 구별하는” ‘더블 스탠다드’ 입장을 취하고 있었는데, 전후 내각 처음으로 나카소네 내각에서 이러한 전쟁책임이 국내적으로 공식화되면서 대외적 표명과 국내적 자세가 일치되어 가기 시작한 것이다.³²⁾

이러한 나카소네의 정치적 지향성을 파일(Kenneth B. Pyle)은 다음과 같이 정리하였다.³³⁾

(나카소네는) 국가진로를 국제적 추세에 맞추어 결정하기보다는 독자적으로 결정하려 했다. 외교문제에 기회주의적 접근을 하지 말고 일본 자체의 이상에 따라 행동해야 한다고 했다.

파일의 지적처럼, 나카소네는 일본의 주체적 판단과 일본 자체의 이상을 구축하고자 한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이상은 전전(戰前)의 ‘대동아공영권’과 같은 국제사회에 설득력을 상실한 것이 아니라, 전후 정착되어 갔던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법의 지배 등 ‘국제 자유주의’와 접목해야

31) 若月秀和 『冷戦の終焉と日本外交』 千倉書房, 2017, p. 260에서 재인용.

32) 吉田裕(1995), p. 82, pp. 168-70.

33) Pyle(2007), p. 453.

했다. 결국 나카소네는 민족주의와 국제주의를 결합한 새로운 일본인의 정체성을 창출하려했으며, 이를 통해 적극적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토대를 구축하고자 했던 것이다.³⁴⁾

2. 나카소네 외교의 본질에 대한 평가

이러한 민족주의와 국제주의의 이념적 결합은 요시다 노선으로 형성된 전후 일본 정치가 일본의 주체적 판단을 저해하는 근본 요인이면서도, 이로 배양된 국제 자유주의적 가치가 전후 일본의 평화와 번영을 불러왔다는 전후체제에 대한 이중적 평가에 기반했기 때문에 가능했다. 이러한 나카소네의 리더십을 최희식은 ‘내재화된 변혁적 리더십(embedded transformational leadership)’으로 규정했다. 즉 나카소네의 리더십은 전후체제의 변혁을 추구하는 ‘체제 변혁적 리더십’의 요소가 있었지만, 전후체제에 대한 이중적 평가에 따라 전후체제의 긍정적 요소를 활용하고자 하는 중용적인 리더십의 형태를 보였다는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나카소네의 정치 리더십은 전후 체제에 뿌리박으면서도 이를 부정하는 전후체제에 내재화된 변혁적 리더십이었던 것이다.³⁵⁾ 따라서 그의 정치이념은 “경제중심주의적인 요시다 노선과는 궤도를 달리하였다. 그러나 나카소네의 신국제주의 노선은 하토야마나 기시류의 복고적·전통주의적 보수주의와도” 달랐던 것이다.³⁶⁾ 오타카 히데오(大獄秀夫)는 나카소네의 정치이념을 ‘배타적 전통주의’와 ‘사회적 자유주의’의 기묘한 결합으로 설명하기도 했다.³⁷⁾

34) 大獄秀夫(1994), p. 263.

35) 최희식, 「나카소네 야스히로의 정치 리더십 연구: 내재화된 변혁적 리더십의 성과와 한계」, 『한국정치학회보』, 46-5호, 2012.

36) 박철희(2011), p. 214.

37) 大獄秀夫(1987), pp. 79-89.

반면 와카츠키 히데카즈(若月秀和)는 최근(2017년) 저서 『냉전의 종언과 일본외교(冷戦の終焉と日本外交)』에서 나카소네의 정치이념을 ‘국가민족주의’와 ‘지정학’의 결합으로 설명하고 있다. 그는 기존연구와 같이 헌법개정, 야스쿠니 신사참배 등 전후 정치의 총결산 노선과 정책을 국가민족주의의 발로로 보고 있다. 그러나 국제주의에 대한 평가는 조금 다르다. 그는 나카소네 외교가 오히려 수상의 ‘서구의 일원(西側の一員)’ 외교를 계승하며 미일동맹을 근간으로 자유진영 국가의 유대를 강화하려는 지정학적 고려의 산물로 보고 있다.³⁸⁾

실제 70년대 일본 외교는 ‘전방위 외교’를 표방하며 외교지평의 확대를 모색하는 데탕트 외교를 지향하였다. 후쿠다 독트린, 통일 베트남과 아세안의 화평, 북한과 소련과의 외교 등 미일동맹 중심 외교에서 벗어나 외교지평의 확대를 모색해 왔던 것이 사실이다.

반면, 나카소네 외교는 신냉전 하에 미일동맹을 강화하고 한국 등 동북아시아 외교에 중점을 두었고, 이는 소련 견제의 의미가 컸다. 그런 의미에서 나카소네가 표방하는 국제주의는 실질적으로는 자유진영의 유대강화, 즉 대소 견제망 구축이라는 형태로 나타나는 지정학적 외교에 불과하며, 그 외교가 성공한 것은 신냉전이라는 구조적 요인에 기인한 바가 크다는 와카츠키의 평가는 주목을 요한다.

나카소네의 민족주의와 ‘친미(미일동맹의 강화)’가 지정학적 외교전략으로 구체화되며 상호 결협하는 형태를 보인다는 측면에서, 90년대 이후 일본 보수 외교 전략의 ‘원형’을 구축했다는 평가가 가능할 것이다. 즉, 지도 상 견제해야 할 국가를 선택하고, 이를 위해 ‘국제협조’ 혹은 ‘미일 협력주의’를 표방하며 그 주변 국가에 대한 전략외교를 실시하고, 이러한 국제적 역할을 내재화하기 위해 국가주의적 의식을 고취하는 전략은 나카소네 외교의 특징이었으며, 90년대 일본 보수 외교전략으로 계승되었

38) 若月秀和(2017), p. 672.

다. 와카츠키 교수가 현 아베 수상이 '지구본을 부감(俯瞰)하는 외교'를 표방하며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지정학적 외교를 구사하면서 동시에 헌법 개정 등 국가민족주의를 내걸고 있는 모습 속에 나카소네의 모습을 중첩시키는 것은 그러한 이유에서 일 것이다.³⁹⁾

이러한 와카츠키 교수의 나카소네 외교에 대한 새로운 분석은 또 다른 의미에서 중요한 함의성을 지닌다. 즉 나카소네 외교가 신냉전 하 지정학적 외교에 빛을 발했지만, 80년대 중반 이후 전개된 탈냉전을 향한 국제정치에는 적응하지 못하는 한계를 보였다는 분석에 주의를 요한다. 기실 나카소네 외교는 '서측의 일원' 외교에 함몰되며, 소련견제를 위한 미일동맹 강화, 한일, 한중, 아세안 외교의 강화에 치중되었다. 그리고 이러한 나카소네 외교는 신냉전이라는 상황에서 미소 간 대립 상황에서는 빛을 발할 수 있었지만, 85년 이후 미소 간 긴장완화 국면이 도래하면서 역사는 냉전 붕괴의 방향으로 흐르고 있었고, 자유진영 외교에 머물렀던 나카소네 외교는 새로운 상황에 대한 적응력을 상실하게 되었다. 소련과의 관계 복원을 위한 노력도 결국 앞에서 살펴본 SDI 공동연구 참여결정, 방위비 증강 등의 이유로 사실상 실패한 것은 대표적인 예일 것이다.⁴⁰⁾ 이렇듯 나카소네가 표방했던 국제협조주의 및 미일협조주의는 지정학적 외교 전략으로 나타났으며 그 성공은 기실 강대국 간 대립을 전제로 했을 때이다. 그러나 그러한 강대국 간 대립이 완화되었을 시, 그 외교가 유연성을 상실한다는 사실을 80년대의 전환기에 대한 와카츠키 교수 분석에서 읽어낼 수 있는 것이다.

39) 若月秀和(2017), p. 664.

40) 若月秀和(2017), p. 656.

Ⅲ. 나가며: 요시다 노선과 나카소네 외교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나카소네 외교는 전후 정치의 총결산, 국제국가 일본 등을 표방하며 요시다 노선과의 결별을 추구했다. 과연 90년대 이후 정착된 나카소네 노선은 요시다 노선으로부터의 탈피를 의미하는 것일까? 아니면 요시다 노선의 연장선 속에 이해되어야 하는 것일까?

2007년에 출판된 파일(Kenneth B. Pyle)의 *Japan Rising*은 90년대 이후 요시다 노선에 어떠한 변화가 초래되었는지를 분석한 역서이다. 그는 탈냉전 이후 걸프전과 북핵 위기를 거치면서 요시다 노선이 해체의 과정을 겪고 있다고 분석한다. 중국의 대두 등 불안정한 아시아 국제질서가 일본 정치엘리트의 불안의식을 증대시키고, 전후세대의 대두 등 정치구조의 변화와 연동되면서 요시다 노선의 해체 흐름은 가속화될 것이라는 것이다⁴¹⁾. 그리고 그 시초를 앞에서도 살펴보았듯이 나카소네 외교에서 찾고 있다. 이미 설명했듯이, 나카소네 외교는 해외 파병, 헌법개정 등에 실패하였다. 그리고 90년대 보수 정치가는 그 실패에서 자신의 정책적 출발점을 찾았으며 보통국가론은 그 과정에서 중요한 슬로건이 되었다.

반면 같은 해 출판된 *Securing Japan*에서 사무엘스(Richard J. Samuels)는 반대의 주장을 하였다. 그는 일본 내 외교전략 담론구조와 그 정치적 세력균형을 분석하면서 일본 외교전략이 요시다 노선에서 급격히 이탈하지 않고 중국의 대두와 미국의 쇠퇴 양자를 피하고자하는 미들파워(middle power) 노선으로 정착될 확률이 높다고 결론지었다. 즉 미일동맹을 기본으로 하되 미국과 중국 모두에게 너무 차갑거나 너무 뜨겁지 않는 이솝우화의 골디락스(Goldilocks)와 같은 외교를 추구할 것이라고 내다보았다.⁴²⁾

41) Pyle(2007), pp. 597-600.

42) Samuels, Richard J. *Securing Japan: Tokyo's Grand Strategy and the Future of East Asia*(New York: Cornell Univ. Press, 2007).

이러한 논리 속에 나카소네 외교는 대국외교를 거부한 요시다 노선의 미일 협조주의에 불가하며, 요시다 노선에서의 근본적 이탈은 아니게 된다.

이러한 양분된 주장은 기실 요시다 노선에 대한 정의에서 비롯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요시다 노선은 '55년 체제'(保革대립 구조)라는 국내정치와의 연관성을 강조하는 흐름과 국제질서 특히 미국의 아시아 전략과의 연관성을 강조하는 흐름으로 대별될 수 있으며, 실제 양자의 연관성이 동시에 논의되고 있다. 하지만 양자의 논리적 연결 구조에 따라 상이한 접근법이 존재한다. 가장 일반적으로 요시다 노선은 '대미 안보의존, 경무장, 성장제일주의', 즉 정책 내용적으로 정의되고 있다. 이러한 정의에 의하면 미국에 안보를 의탁하고 미국의 아시아 정책에 협조 내지 추수하면서 정치적 역할은 방기한 채, 격심한 보혁대립을 회피하기 위해 전수방위 원칙, 비핵3원칙, 무기수출3원칙, 자위대 해외파병 금지 등 '제한적 방위정책'으로 평화주의 세력을 포섭하고 경제성장에 몰두하는 국가상이 강조된다. 이러한 요시다 노선은 비전략성 혹은 소극성, 즉 정치분야에서의 적극적 역할을 방기하는 '모라토니엄 국가(永井陽之助)' 혹은 경제 내셔널리즘에 전념하는 '통상국가'로 정의되기도 한다.⁴³⁾ 이에 따라 요시다 노선은 55년 체제 내 보수와 혁신의 타협점으로 기능하면서 정치적 안정을 부여하고 경이로운 경제성장을 이루는 토대가 된 반면, 국가위신과 자존심을 희생시켜 좌우의 비판을 초래하였다는 것이다. 다만 이러한 접근 방식에는 미일관계 우선주의를 주축으로 놓으면서도 통상국가를 강조하는 경향⁴⁴⁾과 제한적 방위정책⁴⁵⁾을 강조하는 경향의 두 가지 흐름이 존재

43) 특히 그는 “요시다 독트린은 영원하리(吉田ドクトリンは永遠なり)”라며 요시다 노선의 국내정치적 지지구조를 명확히 하며, 요시다 독트린이 오랫동안 지속될 것으로 내다보았다. 永井陽之助 『現代と戰略』 文芸春秋, 1985, pp. 48-78.

44) 대표적인 것은 다음과 같다. Eric Heginbotham and Richard J. Samuels, “Mercantile realism and Japanese Foreign Policy”, *International Security*(Vol. 22, No. 4, 1998, Spring)

45) 대표적인 것은 다음과 같다. Tomas V. Berger, “From Sword to Chrysanthemum”,

한다. 이는 정치경제학적 분석과 외교안보정책 분석 사이의 미묘한 차이를 반영하는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정책내용이 상실되는 것은 곧 요시다 노선의 해체로 보여지는 것이다. 파일 교수가 제한적 방위정책의 해체과정을 분석하며 요시다 노선의 해체를 논하는 것은 대표적인 예일 것이다. 그에게 있어 나카소네 외교는 요시다 노선의 해체를 꿈꾸었으나 요시다 노선의 높은 벽에 부딪혀 실패한 것으로 분석되어 진다. 그리고 “결국 헌법을 개정하고 그것을 일본의 새로운 진로에 적응시킬 계기를 만들 사람들은 헤이세이 세대(전후세대)가 될 것”이며, “그들은 나카소네의 노력이 실패했던 곳에서 시작할 참”이었던 것이다.⁴⁶⁾ 그린(Michael Green) 또한 *Japan's Reluctant Realism*에서 일본 외교가 기존의 통상적 자유주의에서 세력균형과 유연한 봉쇄를 내용으로 하는 주저하는 현실주의(*reluctant realism*)으로 전환되었다고 주장하는 것 또한 맥을 같이 하고 있다.⁴⁷⁾

동시에 이러한 내용적 정의에 입각해 요시다 노선의 ‘해체’와는 다른 ‘분해’라는 시각도 나올 수 있다. 이오키베 마코토(五百旗頭真)의 다음과 같은 분석은 이를 가장 잘 설명해 준다.⁴⁸⁾

일미동맹 하에 경제국가 일본으로써 발전을 추구해온 요시다 노선은 냉전기를 통해 일본의 방침이었다. 요시다 독트린으로 불리워지며 놀라울 정도로 장수를 누려온 이 노선은 냉전 후에서조차 기본적으로 답습되고 있다. 그래도 90년대 안전보장 상의 위기가 빈발하며 그것에 대처해 나가는 중, 요시다 독트린은 두 개의 입장으로 분해되기 시작했다라고 보여진다. 첫째는 평화적 국제협조적인 경제국가를 계속 유

International Security(Vol. 17, No. 4, 1993, Spring)

46) Pyle(2007), p. 579와 p. 610.

47) Green, Michael, *Japan's Reluctant Realism: Foreign Policy Challenges in A Era of Uncertain Power*(London: Palgrave, 2003)

48) 五百旗頭真編(2010), p. 312

지해야 한다는 입장이며, 또 하나는 일미동맹을 중시하고 헌법개정과 집단적 자위권의 행사를 통해 미국과 공동으로 국제질서를 유지하자는 입장이다.

이오키베는 전자의 입장을 자유주의적 국제정치관에 입각한 평화적 발전주의로 명명하며, 후나바시 요이치의 ‘글로벌 시빌리언 파워론’을 대표적 입장으로 소개한다. 반면 후자는 현실주의적 국제정치관에 입각한 ‘보통국가론’을 대표적 입장으로 소개한다.⁴⁹⁾ 주의해야 할 것은 보통국가론과 평화적 발전주의가 요시다 독트린의 대체가 아니라 분해로 설명된다는 점이다. 실제 이오키베는 전후 일본의 외교노선을 사회민주주의 노선, 경제중심주의 노선, 전통적 국가주의 노선으로 분류했다. 이오키베 교수에게 있어 요시다 노선은 사회민주주의 노선과는 달리 미일 안보조약을 기반으로 하는 미일 협조주의이며, 동시에 전통적 국가주의 노선과는 달리 강병을 보다는 부국을 추구하는 경제중심주의 노선이다. 이오키베는 이러한 요시다 노선의 두 속성이 탈냉전 이후 분해되어 가고 있는 것으로 보는 것이다. 따라서 보통국가론은 요시다 노선의 중요한 속성인 미일협조주의가 분해되어 더욱 적극적인 미일동맹 강화론을 주창하는 것으로 그려지고 있는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그는 “나카소네 내각 시기가 일본 외교의 정점을 찍었다”고 분석하며, 나카소네 외교는 요시다 노선의 미일협조주의가 가장 정점에 있었던 시기로 분석되는 것이다.⁵⁰⁾ 그의 논리에 기반에 다른 각도로 보면, 나카소네 외교는 요시다 노선이 보통국가로 분해하는 시작점이 되는 것이다.

‘분해’의 시각과는 달리 고사카 마사타카(高坂正堯)는 다음과 같이 나카소네 외교를 요시다 노선의 미일 협조주의의로의 ‘수렴’으로 이해했다.⁵¹⁾

49) 五百旗頭真編(2010), p. 312-313

50) 五百旗頭真編(2010), pp. 287-288, p. 305

51) 高坂正堯(1996), pp. 319-340.

실제 요시다에 대해 결코 호의적이지 않았던 인물이 결과적으로는 요시다 독트린에 힘을 부여해준 역설이 존재한다. 미키 다케오와 나카소네 야스히로가 그렇다. 이 두 사람은 요시다 재임 시기에 그의 외교에 대한 비판자였다. 그러나, 미키 내각은 일미 간 방위협력을 현실적인 것으로 하는 출발점이 되는 조치를 취했다. 나카소네도 자주방위를 말했지만, 결국 일미관계를 더욱 진전시켰다. 그들이 필요에 따라 움직여서 그렇게 된 것으로 (실제) 마음은 알 수 없다. 그러나 외교에 있어 중요한 요인은 이러한 현실적 필요인 것이다.

자민당 좌파인 미키와 자민당 우파인 나카소네가 ‘현실적 필요’로 인해 결국 요시다 노선으로 회귀했다는 고사카의 설명은 많은 연구자들이 주장하는 ‘요시다 노선으로의 수렴’ 현상과 궤를 같이 한다. 미일 안보조약에 의한 미국에의 안보의존, 평화헌법의 존재 등 구조적 요인에 의해 일본의 좌우가 요시다 노선으로 수렴하는 현상을 보여주는 것이다. 요시다 노선을 미일협조주의로 규정한 그에게 있어, 나카소네 외교는 요시다 노선의 미일협조주의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던 것이다.

반면, 요시다 노선을 내용적으로 정의내리는 것이 아니라, 미일동맹과 평화헌법의 괴리를 주체적으로 포용하는 ‘전후 리얼리즘’으로 정의하는 방식이 있다. 즉, 이에 따르면 미일안보조약과 평화헌법 및 보혁대립이라는 국내적 구조, 냉전이라는 국제적 구조적 제약을 리얼리즘적으로 수용하며 합목적적으로 국가이익을 추구하는 일본 외교상(전후 리얼리즘)이 강조된다. 가령 소에야 요시히데 교수는 평화주의자와 전통적 국가주의자의 분열구조(이중 아이덴티티) 속에, 평화헌법을 전제로 놓고 미일 안보관계를 기축으로 하는 외교노선, 즉 중용노선이 요시다 노선의 본질이며, 이는 전후 리얼리즘의 대표적 예로 정의내리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전후 리얼리즘은 국제정치구조에 대한 통찰로 전통적 대국주의를 의식적으로 거부하는 미들파워 외교의 전형을 보여준다는 것이다.⁵²⁾

이러한 관점에서 그는 나카소네 외교 또한 이러한 전후 리얼리즘과 미들파워 외교에서 벗어난 것이 아니라는 분석을 제시한다. 소에야 교수는 70년대 방위청 장관 시절의 나카소네 구상, 비핵중급국가론 및 자주국방론을 분석하며, 그의 구상은 평화주의와 전통적 국가주의 사이의 분열적 국가상을 중용으로 통합하려는 시도로 보았으며 전후 리얼리즘과 미들파워의 예로써 파악하였다. 고사카 교수가 대미 자주론자인 나카소네가 ‘현실적 이유로 미일 협력주의자가 되었다는 분석과는 달리, 애초에 나카소네 자신은 요시다 노선의 미일 협력주의 자체를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요시다 노선이 가져온 안보와 경제의 괴리(뒤틀림)를 메우려는 전략적 노력이었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⁵³⁾ 소에야 교수가 요시다와 나카소네에게서 전후 리얼리즘을 읽어내며, 작금의 현실에 맞는 전후 리얼리즘, 즉 미일협조주의를 위한 헌법개정 및 집단적 자위권의 인정이 요시다 노선의 뒤틀림을 해소하려는 전략적 노력이며, 이것이 미들파워론을 고수한 전후 일본 외교로부터의 근본적 이탈이 아님을 주장하는 것은 그 이유 때문이다. 이는 앞에서 설명한 *Securing Japan* 에서의 사무엘스 주장과 맥을 같이 한다.

이상의 논의를 종합하면, 자주 국방론, 헌법개정 등 ‘전후체제의 극복’을 주장하면서 적극적 미일협조주의를 구가했던 나카소네 외교는 ‘나카소네 없는 나카소네 노선의 정착’ 과정을 겪으면서 90년대 이후 일본 보수의 주류가 되었다는 점은 부정하기 힘들 것이다. 따라서 나카소네 외교의 본질을 들여다 보려는 최근의 여러 노력은 현대 일본 외교를 이해하는데 필수불가결한 요소가 되었다. 와카츠키 교수의 최근(2017년) 저서 『냉전의 종언과 일본외교(冷戦の終焉と日本外交)』는 지금까지의 나카소네 외

52) 添谷芳秀(2005), pp. 16~17, pp. 24~25.

53) 添谷芳秀(2005), pp. 139~146.

교 분석에 있어 ‘지정학’이라는 새로운 요소를 가미함으로써 더욱 의미 있는 논의가 전개되는 토대를 마련해주었다. 나카소네가 표방하는 국제주의는 실질적으로는 자유진영의 유대강화, 즉 대소 견제망 구축이라는 형태로 나타나는 지정학적 외교에 불과하며, 그 외교가 성공한 것은 신냉전이라는 구조적 요인에 기인한 바가 크다는 와카츠키의 평가는 주목을 요한다. 나카소네의 민족주의와 ‘친미(미일동맹의 강화)’가 지정학적 외교전략으로 구체화되며 상호 결협하는 형태를 보인다는 측면에서, 90년대 이후 일본 보수 외교 전략의 ‘원형’을 구축했다는 평가가 가능할 것이다. 동시에 나카소네 외교와 요시다 노선과의 연관성을 이해하는 것은 나카소네 외교의 현대적 산물인 ‘보통국가론’의 본질을 이해하는데도 중요하다. 나카소네 외교는 요시다 노선으로부터의 단절, 요시다 노선의 분해, 요시다 노선으로의 수렴 등 다양한 해석이 가능하며, 이는 곧 나카소네 외교로 출발하는 ‘보통국가론’의 정확한 본질을 이해하는데 중요한 지점이 될 것이다. 日本空間

논문 투고일 : 2018년 5월 14일

논문 심사일 : 2018년 6월 12일

게재 확정일 : 2018년 6월 15일

참고문헌

- 남기정, 「한국전쟁과 일본: 기지국가의 전쟁과 평화」, 『평화연구』 9권 1호, 2001.
- 박철희, 『자민당 정권과 전후 체제의 변용』, 서울대출판부, 2011.
- 이시카와 마쓰미, 박정진 역, 『일본 전후정치사: 일본 민주주의의 보수적 기원과 전개』, 후마니타스, 2006.
- 최희식, 「나카소네 야스히로의 정치 리더십 연구: 내재화된 변혁적 리더십의 성과와 한계」, 『한국정치학회보』 46-5호, 2012.
- Dower, John, "Peace and Democracy in Two Systems: External Policy and Internal Conflict", Andrew Gordon, ed., *Postwar Japan as History* (Berkeley: Univ. of California, 1993).
- Eric Heginbotham and Richard J. Samuels, "Mercantile realism and Japanese Foreign Policy", *International Security* Vol. 22, No. 4(1998, Spring).
- Green, Michael, *Japan's Reluctant Realism: Foreign Policy Challenges in A Era of Uncertain Power* (London: Palgrave, 2003).
- Pyle, Kenneth B., *Japan Rising: the Resurgence of Japanese Power and Purpose* (New York: Public Affairs, 2007). 이종삼 역, 『강대국 일본의 부활』 서울: 한울, 2008.
- Samuels, Richard J. *Securing Japan: Tokyo's Grand Strategy and the Future of East Asia*(New York: Cornell Univ. Press, 2007).
- Tomas V. Berger, "From Sword to Chrysanthemum", *International Security* Vol. 17, No. 4(1993, Spring).
- 高坂正堯, 「日本外交の弁証」, 渡辺昭夫 編, 『日本の外交』, 東京大学出版会, 1996.
- 吉田裕, 『日本人の戦争観』, 東京: 岩波書店, 1995.
- 大獄秀夫, 「中曽根政治のイデオロギーとその国内政治的背景」, 『レヴェイアサン』(秋), 1987.
- 大獄秀夫, 『自由主義的改革の時代』, 東京: 中央公論社, 1994.
- 松田橋和, 「新しい政権システムの芽生え」, 世界平和研究所 編, 『中曽根内閣史: 理念と政策』, 東京: 丸の内出版, 1995.
- 松田橋和・佐々木芳隆, 「新時代への政策提起」, 世界平和研究所 編, 『中曽根内閣史: 理念と政策』, 東京: 丸の内出版, 1995.
- 信田智人, 『官邸外交: 政治リーダーシップの行方』, 東京: 朝日新聞社, 2004.

- 岩崎八男, 「戦後政治の総決算: 55年体制改革への始動」, 世界平和研究所 編, 『中曾根内閣史: 理念と政策』, 東京: 丸の内出版, 1995.
- 若宮啓文, 『和解とナショナリズム』, 東京: 朝日新聞社, 2006.
- 若月秀和, 『冷戦の終焉と日本外交』, 千倉書房, 2017.
- 永井陽之助, 『現代と戦略』 文芸春秋, 1985.
- 五百旗頭真 編, 『戦後日本外交史』, 東京: 有斐閣, 2010.
- 長谷川和年, 「中曾根外交」, 世界平和研究所 編, 『中曾根内閣史: 理念と政策』, 東京: 丸の内出版, 1995.
- 佐道明広, 『戦後日本の防衛と政治』, 東京: 吉川弘文館, 2003.
- 佐々淳行, 「中曾根内閣と国の危機管理」, 世界平和研究所 編, 『中曾根内閣史: 理念と政策』, 東京: 丸の内出版, 1995.
- 中島信吾, 「戦後日本の防衛政策」, 慶應義塾大学大学院法学研究科博士論文, 2001.
- 中島琢磨, 「戦後日本の自主防衛論: 中曾根康弘の防衛論を中心として」, 『法政研究』(71-4), 2005.
- 中島琢磨, 「中曾根康弘防衛庁長官の安全保障構想」, 『九大法学』(84), 2002.
- 中曾根康弘, 「官邸日記」, 世界平和研究所 編, 『中曾根内閣史 - 資料』 東京: 中央公論, 1995.
- 中曾根康弘, 「中曾根康弘: 自立と世界外交を求めて」, 『国際問題』(1月), 2002.
- 中川幸次, 「増税なき財政再建」, 世界平和研究所 編, 『中曾根内閣史: 理念と政策』, 東京: 丸の内出版, 1995.
- 添谷芳秀, 『日本のミドルパワー外交』, 東京: 筑摩書房, 2005.
- 何力群, 「日本政治の転換点: 一九七〇年代の中曾根康弘」, 『国際公共政策研究』 15-1, 2005.
- 香山健一, 「中曾根内閣の歴史的役割」, 世界平和研究所 編, 『中曾根内閣史: 理念と政策』, 東京: 丸の内出版, 1995.
- 黒田眞, 「対米摩擦と市場開放」, 世界平和研究所 編, 『中曾根内閣史: 理念と政策』, 東京: 丸の内出版, 1995.

The Meaning of Nakasone Diplomacy in the Post-war Japan

Heesik CHO

Nakasone's diplomacy which advocated active US-Japan cooperation by insisting on "overcoming the post-war system", such as self-defense and constitutional amendments became a mainstream of Japan's conservatives since the 1990s, undergoing the process of "establishing a Nakasone line without Nakasone." Therefore, recent efforts to understand the nature of Nakasone diplomacy have become indispensable factors in understanding modern Japanese diplomacy. At the same time, understanding the connection between Nakasone diplomacy and the Yoshida line is also important to understand the essence of the "ordinary state theory", a modern product of Nakasone diplomacy. Nakasone's internationalism is merely a geopolitical diplomacy that is in the form of strengthening the ties of the free nations under Cold-War, that is, establishing a large-scale containment network. The success of diplomacy is largely due to the structural factors of the New Cold War. It is possible to evaluate that Nakasone's nationalism and 'pro-America(strengthening of the US-Japan alliance)' are embodied in geopolitical diplomacy strategies and form the model of Japanese Diplomacy in Post Cold-War.

Key words

Nakasone Yasuhiro, Japanese Diplomacy, Yoshida Doctrine, Geopolitics, Internationalism